

OpenDoors

09

2023

VOL.257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

레베카와 북한 여성 사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박해와 선교현장

모리타니(Mauritania)

박해뉴스

베트남 / 나이지리아

현장스토리

필리핀 : 예수님이 저의 편이시니 저는 큰 꿈을 꿀 수 있어요
이라크 :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에티오피아 : 베드루 가족 이야기

Heart To Heart

한국오픈도어 기도모임 /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 /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Arise Africa Campaign)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Ch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OpenDoors

신앙의 자유를 위한 오픈도어선교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We are people of prayer.

김경복 선교사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사무총장)

매년 5월이면 전세계 오픈도어 사역 책임자들이 한국에 모여 전략회의를 갖는다. 올해는 오픈도어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모였는데, 주요 아젠더가 오픈도어 DNA에 대한 것이었다. 내게 맡겨진 주제가 바로 오픈도어 네번째 핵심가치인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였다. “왜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오픈도어의 DNA를 돌아봐야 하는가?” 발제를 준비하면서 줄곧 머리속에 맴도는 질문이었다. 그렇다. 이제 오픈도어의 창립자들은 서서히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 정신만큼은 오랜 시간을 두고 변치 않도록 다음세대가 지켜가야 할 영적 유산이다.

1995년 한국에서 오픈도어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제 곧 한세대를 마감하게 된다. 2025년이면 30주년을 맞게 되는데, 오픈도어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할 지를 다시 깊게 생각하게 된다.

“言教不如身教，身教不如境教。”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일한 나는 자연스럽게 중

국식 사고에 천착 되어 있다. 선구자들이 걸어 갔던 길을 어떻게 다음세대와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러한 화두를 던지며 소통할 때 돌아왔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다. 말로 가르쳐지는 가치, 함께 부대끼며 몸에 장착된 일상, 그리고 수많은 일상이 모여 만들어지는 문화와 전통, 이 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세대와 세대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한국교회의 선교도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가는 도상에 있다. 오픈도어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며, 그들이 박해와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바로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아 주님의 사명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와 함께 하는 오픈도어 선교방식도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들에게 전달해야 할 아름다운 전통 중 하나이다.

미디어가 그렇게 발달되지 못한 시절, 매주말마다 찾아오는 KBS 명화극장이 있었다. 그 때 만난 ‘바베트의 만찬(Babette's Feast)’이 던진 메시지는 지금도 뇌리에 각인되어 있다. 이 영화는 덴마크 여류 작가 카렌 브릭센(Karen Blixen)의 원작을 아름다운 영상과 멜로디로 담아 냈다. 덴마크를 배경으로 한 해안가 마을에 세워진 소박한 교회, 청교도의 금욕적 삶으로 한평생 헌신한 목사님과 두 딸, 그리고 아웅다웅 삶을 영위하는 마을사람들 그들은 모두 청교도적 가치를 따라 한평생을 도전하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고, 서로 불평불만을 쏟아 낸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프랑스에서 도피해온 바베트라는 한 자매의 헌신적 삶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영화의 백미, 프랑스 복권 당첨금 1만 프랑으로 준비한 프랑스 최고급 요리가 펼쳐지는 만찬에서 사람들은 서로 화해하며,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다. 이 여운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잔상이 가시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가?

지난 8월 7-11일까지 한동대에서 선교한국이 있었다. MZ 세대들 1,400명이 모여서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업을 고민했다. 오픈도어도 모든 간사들과 함께 이들을

섬기기 위해 찾아 갔다. 부스를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만나며, 8월호 회지에 소개된 오픈도어 사역 스토리-한 영혼을 향한 멈추지 않는 기도의 힘-를 들려줬다. 그들의 눈매에 감동의 눈망울이 맺혔다.

“오픈도어는 박해현장의 소식을 전하며,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함께 기도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0년전 오픈도어는 에티오피아의 랄리스를 위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랄리스는 결혼한지 몇 달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것입니다. 오픈도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독일 출신의 한 젊은 여성이 랄리스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만만찮도 없는 에티오피아의 여성, 랄리스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약 10년이 지나고 그녀는 오픈도어에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랄리스를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으며,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픈도어 사역자들은 감동했고, 랄리스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현재 랄리스는 재혼을 하여 가정을 이뤘고, 교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도 마쳤으며, 현재 발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갑니다. 오픈도어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오픈도어 사역도 줄곧 기도와 함께 진행되어 왔다. 이것은 오픈도어 창립자들이 삶으로 보여준 일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컨퍼런스 중간 중간에도 논의를 멈추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회에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 이 전통이 오픈도어와 함께 만나야 한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전세계 박해현장의 고통 가운데 있는 랄리스와 같은 지체들을 기억해야 한다. 자신의 일신과 교회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 전세계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는 기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11월5일은 세계복음주의협의회(World Evangelical Association, WEA)가 제정한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The 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the Persecuted Church, IDOP)이다. 한국오픈도어도 전세계 박해현장의 긴급한 기도요청들을 나누며, 여러 지체들과 연합하여 기도할 것이다. 한국교회 성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 전세계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는 주님의 긍휼함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히13:3)

CONTENTS

- 05 북한선교현장**
- 레베카와 북한 여성 사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06 박해와 선교현장**
- 모리타니(Mauritania)
- 13 박해뉴스**
- 베트남 / 나이지리아
- 15 현장스토리**
- 필리핀 : 예수님이 저의 편이시니 저는 큰 꿈을 꿀 수 있어요
- 이라크 :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 에티오피아 : 베드루 가족 이야기
- 20 Heart to Heart**
- 한국오픈도어 기도모임
-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
-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Arise Africa Campaign)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OPENDOORS 7가지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SUPPORT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23년 09월호 | 통권 257호 |
등록번호-중량, 라00042**

공동대표: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김영복 목사

이사회: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이사

사무총장: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문민환, 황자경, 박인영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이정현,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간사

발행처: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김셋별



북한선교회현장

레베카와 북한 여성 사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레베카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목사의 아내로 지내며 계속해서 북한 여성들과 북한 사역을 위해 지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레베카는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원에 대한 따뜻한 안부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레베카가 책임지고 있는 북한 여성 사역을 돌보는 또 한 명의 현장 사역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몇몇 북한 여성들이 또 다른 북한 여성들을 인도할 기독교 모임 인도자들로 훈련되고 양육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분으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정착하는 북한 여성들에게는 많은 씨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언제든지 북한으로 송환되고 붙잡히면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북한 여성 사역의 성경 공부 모임을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양육받고 훈련될 여성 리더들에 대해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현장 사역자들과 북한 여성 사역을 찾아오는 북한 여성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여성 현장 사역자들이 북한 여성 사역 팀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누가복음 10장 2절)”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3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기독교 박해지수
20위

모리타니 (Mauritania)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 6개 영역 = 100).

주목할 만한 점 (Key findings)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사회로부터 극심한 반대에 직면한다. 이러한 제한적인 환경은 이들이 공개적으로 종교의식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모리타니인이 아닌 기독교인들(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 포함)의 공개적인 신앙 표현도 무슬림들에 대한 전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하고 이는 투옥과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리타니 (Mauritania)

국가 정보

지도자 : 모하메드 울드 엘-가자우아니 대통령
인구 : 4,902,000 명
기독교인 수 : 11,000 명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주요 종교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11,000	0.2
이슬람교	4,865,000	99.2
민족종교	20,100	0.4
불가지론	4,800	0.1

모리타니는 광물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다. 문화는 전통적이고 부족은 그 핵심에 있다. 지속적인 노예 관행은 사회적 분열과 악감정의 주요한 원인이다. 백인 무어인과 베르베르인은 아랍 혈통이지만 하라틴 또는 흑인 무어인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노예들은 아프리카 민족 혈통이다. 거의 모든 정치적 및 경제적 세력은 백인 무어인들의 지배 하에 있고, 이는 사회의 대부분(70%)은 여전히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

폭력적인 이슬람 과격단체들은 특히 나라의 동부 접경 지역에서 활발하다. 비록 수도 누악쇼트 근처의 국가 서부는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지만, 과격단체들 또는 다른 범죄 집단들에 의한 납치는 국내 도처에서 위험하고 이는 특히 외국인들에게 더 그러하다.

국가의 정식 명칭은 모리타니 이슬람 공화국이고 대부분의 모리타니안은 이슬람교 수니파이다. 이슬람 극단

주의 집단들의 영향력은 강하다. 기독교는 비난할 만한 서부의 영향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인들, 특히 개종자들에 대한 정부의 적대감은 높다. 이론상으로 이슬람을 떠나는 것에 대한 처벌은 사형 선고이지만 근년에 이것이 적용된 알려진 사례는 없다. 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외국인이고 주로 이웃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출신이다. 이들은 제한된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만 지정된 구내에서만 가능하다. 모두가 무슬림으로 여겨지는 모리타니안들에 대한 아웃리치는 전부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모리타니안의 수는 여전히 낮다. 이들은 극심하게 높은 정도의 가족, 사회적, 그리고 정부의 압박을 경험한다.

지역별 상황

시골 지역에서 부족, 그리고 가족 관계가 특히 엄격하지만, 수도인 누악쇼트에서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압박이 높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압박은 남부 세네갈 국경 지역에서 더 낮다. 이슬람 마그레브 알 카에다(AQIM), 그리고 서아프리카 통일과 지하드를 위한 운동(MUJAO)은 특히 나라의 동부 국경 지역에서 활발하다.

박해 받는 성도

이주민 기독교 공동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온 로마 가톨릭 이주민들이 가장 큰 집단을 이루고 다음은 개신교, 그리고 모

리타니 남부 국가들 출신의 복음주의 교회 신도들이다. 서방 기독교인들의 존재는 적다. 아프리카의 이주 기독교인들은 나라 안의 민족적 편견과 이슬람 극단주의와 관련된 압박 둘다로 인해 위태로운 생활을 이끈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기독교 박해지수 점수 기록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 개종자들은 이슬람 단체들, 대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겨냥된 압박과 폭력에 매우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유목사회에서 공동의 상호 의존은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 개종자들은 이들의 개종이 누구에게든지 알려지면 지역사회에서 지위를 잃기 때문에 대부분이 신앙을 숨기고자 한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기독교 박해지수 점수 기록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해와 차별의 주된 요인

이슬람의 탄압:

비무슬림들은 특히 사회와 이슬람 단체들에 의해 침해를 경험한다. 상당수의 모리타니안들은 북아프리카, 그리고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폭력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에 가담했다. 정부가 이슬람의 교전 상태와 극단주의에 대응하고자 시도하는 동시에 2018년에 배교와 신성모독 법을 더 조였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가장 극심한 침해에 시달린다.

씨족의 탄압 / 민족 종교적 적대감:

이와 같은 매우 보수적인 나라에서 부족 및 인종 간의 긴장은 뒤엎혀있다. 기독교로의 개종은 사회로부터 “불명예스러운”으로 여겨지고 괴롭힘과 폭력을 야기한다. 노예제도는 여전히 존재하고 이는 민족성과 종교 모두와 관계된다. 노예제도에 대한 캠페인은 나라의 이슬람교도들의 적대적인 반응을 촉발시켰다. 나라에 살고 있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계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및 인종 차별의 혼합에 직면한다.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모리타니 사회에서 부족적 소속, 종교적 및 개인적 관계들은 매우 중요하다. 족벌주의, 두목과 부하의 관계에 의존하는 사회, 그리고 다른 형태의 부패가 만연해 있다. 백인 무어 부족과 관련된 소수의 영향력있는 경영인들은 경제 대부분을 통제한다. 공무원들을 포함한 부패를 조사하는 기자들은 흔히 위협을 당하고 구금 당하고 명예 훼손으로 기소당한다(BTI Mauritania 2020, p.12).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안정된 직장을 얻거나 정직하게 번 수입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다.

독재정치:

모리타니 정부는 안정성과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투했다. 보통 말하는 그런 “기독교화”하는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흔히 정부 권력과 인기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방편으로 이용된다. 기독교는 흔히 서구화 및 식민주의와 동일시되고 정부에 의해 이질적인 위협으로 간주된다.



남성과 여성의 박해 상황 차이

여성

모리타니의 부족사회 안에서 여성들은 아버지와 남편들의 권리의 지배를 받고 이는 여성 개종자들을 가장 취약하게 만든다. 이들은 먹을 것을 빼앗기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가택 연금이 되거나, 또는 극심한 노예 상태를 강요 당한다. 현대판 노예제도의 존재는 여성 개종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구금과 착취를 더 그럴듯하게 만들고 매우 가려지게 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에 있어서 선택권이 없고 무슬림 남성과 결혼하도록 강요 당할 수 있다. 기혼 여성 개종자들은 생존 수단 없이 쉽게 이혼 당할 수 있고 일부다처제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 사회적 공동체 / 연결망 접근 제한
- 식량 또는 식수 제한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 / 가택연금
- 인신매매
- 폭력 -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남성

남성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족에 창피를 준다. 이들은 배척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신체적으로 학대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는 도망하기로 결정하고 개종이 확인되면 종교 법정에서 배교 혐의가 내려질 수 있다. 일부는 테러방지 및 사이버 범죄 위반으로 구금 당하고, “이슬람 모욕과 모리타니의 성스러운 신조를 위협

하여 국가 안보를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고소 당했다. 유죄 판결은 장기 징역형과 높은 벌금을 야기할 수 있다. 강한 “아랍화”운동은 많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계 기독교인들이 떠나거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압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적 공동체 / 연결망 접근 제한
- 일/ 직업/ 사업에 의한 경제적 괴롭힘
- 집으로부터 강제 내쫓김 / 추방
- 마을 / 국가에서 강제 내쫓김
- 정부에 의한 투옥
- 폭력 - 신체적 / 정신적

모리타니 기독교 박해지수 5년 동향

연도	오픈도어 기독교 박해지수 순위	박해점수 (100점 만점)
2023	20	72
2022	23	70
2021	20	71
2020	24	68
2019	25	67

모리타니 점수는 2022년 월드와치리스트에 비해 2점 높아졌다. 이는 주로 보고된 압박에 있어서 약간의 증가로 인해 초래되었다. 주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나라에서 직면하는 아주 극심한 압박으로 인해 사실상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균적인 압박은 여전히 극심하게 높음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 (2021년 10월 1일 - 2022년 9월 30일)

나라의 토착민, 그리고 이주민 기독교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사건들이 발생했다. 보안 문제로 구체적인 사항은 거의 제공할 수 없다.

- 세례는 비밀리에 수행될 수 밖에 없고 이슬람에서 개종한 많은 이들은 발견되는 것과 이들에 대한 배교 혐의가 두려워 세례 받는 것을 주저한다.
- 가족들에 의해 발각된 개종자들은 나라를 떠나야 되는 압박을 받는다.

보고 연도	구금 당한 기독교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 당한 기독교인들	자국에서 쫓겨난 기독교인들
2023	2	10*	7
2022	1	10*	0

이 표는 보고 기간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의 폭력 영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징적인 어림수가 주어졌고(10*, 100*, 또는 1000*) 이 결과들은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

개인 생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보통 위험하다. 이주민 기독교인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출신들은 기독교임이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차별과 학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개종 권유로 기소 당할 수 있다. 세례는 비밀리에 수행될 수 밖에 없고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많은 이들은 세례 받는 것을 주저한다. 이들은 발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배교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슬람교에서 개종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이슬람교를 비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들은 사형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 법이 대체로 상징적인 동시에 이는 무슬림 배경 출신의 기독교 개종자들에게 여전히 상당한 위협이다.

가족생활

모든 모리타니안들과 그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무슬림으로 여겨지고 이와 같이 등록된다. 기독교인 아이들은 공립 학교에서 이슬람 수업에 참여해야 되고 차별과 괴롭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모리타니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이혼의 사유가 되고 개종한 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상실할 수 있다.



지역사회 생활

이슬람교 수니파를 따르지 않는 모리타니안에 대해 극심한 집단 압박이 가해진다. 침해는 배척, 사회적 차별, 경제적 배제, 심지어 폭력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모리타니 사회가 민족적 경계를 따라 분리되었고, 경제와 정부가 부패 및 두목과 부하의 관계에 의존하는 사회에 폭 빠져있다는 사실로 인해 고조되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출신의 이주민 기독교인들은 이들의 피부색과 신앙으로 인해 차별을 당한다.

국가 생활

모리타니에는 배교와 신성 모독을 처벌하는 형법이 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말이 이슬람 또는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조심히 작업해야 한다.

교회 생활

프랑스 식민 통치의 잔재로 인해 오로지 로마 카톨릭 교회 만이 합법성을 갖고 공공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누악쇼트 교구에서 카톨릭교회는 복음주의자들이 주요 교회 구내에서 예배드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종은 엄격하게 금지되기 때문에 이주민 교회들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를 이들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은 커녕 교회 건물로 무슬림을 초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모리타니는 다음 국제 조약들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방지협약 (CAT)
4.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5.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모리타니는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로 개종하는 모리타니안들은 구금 되는 동안 투옥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 (ICCPR 제7, 9, 18조)
- 여성 기독교 개종자들이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하기 위해 이들은 심지어 성년에 달하기 전에 무슬림 남성들과의 강제 결혼 위협을 직면한다 (ICCPR 제23조, CEDAW 제16조, ICESCR 제10조)
- 기독교인 아이들은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종교 수업에 참여해야 되고 이들의 신앙 때문에 차별과 압박에 직면한다 (ICCPR 제18조, CRC 제14조)
- 기독교인 개종자들은 공동자원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제외되고 사업은 보이콧을 당한다 (ICCPR 제26조, ICESCR 제11조)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모리타니에는 매우 작지만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교 시아파 소수 집단이 있다. 역사적으로 모리타니 정부는 이란과 훈훈한 외교관계를 가졌고 이슬람교 시아파를 겨냥하는데 있어서 주저했다. 그러나 2018년에 시아파 종교 센터 한 곳이 폐쇄되었다. 나라에 있는 수니파 종교 지도자들은 정부에 제한을 가할 것을 요구하며 소수집단에 대한 맹렬한 비난에서 점점 더 목소리를 냈다.



모리타니 오픈도어 사역

오픈도어는 다음을 통해 북아프리카의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다:

- 훈련
- 문헌 배부
- 사회경제적 개발
- 옹호

오픈도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위해 기도로 지원한다.



따츠(가명)는 불교 가르침에 정통하도록 자라왔다. 그는 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의 불탑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주에서 살고 있다. 2005년,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친척과 지역사회로부터 배반자로 여겨지게 되었다. 박해가 뒤따랐지만 이것은 그가 교회 개척자로 살아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저는 목사가 되었고 2009년에 제 집으로 교회를 개척해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를 시작으로 여자 형제, 아내, 그리고 자녀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14년이 지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수는 13명이 되었다. 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의 불탑이 있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성장이 더딜 수 있다는 것을 따츠는 알고 있었다.

“저의 여자 형제는 아주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었고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는 최근에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와 제 여자 형제에게 악평을 토해냈어요. 그녀를 구타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기까지 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부모님을 향해 욕설을 하고 기독교는 거짓된 종교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 달에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선을 끊어버렸어요. 그 때 저는 저희 지역의 사역과 관련해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훈련 및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날, 따츠의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그는 훈련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 홀로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제가 곁에 없으니 친척들은 저희 식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아내를 정말 많이

비난하고 모욕했어요. 아내는 많이 불안해했어요.”

그러나 그는 조롱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변함없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지지에 감사하고 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역자들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 곳 커매족 공동체에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주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은 부족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하는 소금과 빛 훈련을 준비했다. 훈련을 통해 참가자들이 그들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공감과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동하고 다른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는데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손을 내밀고 박해를 줄여 나갈 권능을 받은 신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픈도어는 훈련 이외에 따츠 가족에게 실제적인 원조를 지원했다.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 티엔니(가명)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저희는 이 가정과 접촉했고 이들이 전기를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후 3개월 동안 음식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옷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했어요. 원조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 찾아갔고 이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따츠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는 소리 내어 기도하고 싶었는데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계속 흘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주님의 공급하심은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가장 알맞은 때에 도착했어요.”



기도해주세요

1. 따츠 목사와 그의 가족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정에서 마주한 이 힘든 시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그가 사역을 계속해 나갈 때 주님께서 가정의 필요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3. 따츠 목사의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어가도록 기도해주세요.

나이지리아_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유수프(20세)는 새 신자입니다. 그는 무수한 개종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엄청난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용감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유수프와 수천명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기도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유수프는 8살 때 처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북부의 무슬림이 지배적인 지역에서 그의 가족은 유수프가 전해 들은 좋은 소식을 따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수프의 부친은 그가 다른 기독교인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다른 주에 있는 삼촌과 함께 살도록 보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 삼촌은 그를 모스크로 데려갔고 유수프는 기독교와 단절되었습니다. 그의 삼촌은 그가 밖에 나가 기독교인 친

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루 종일 농장 일을 시켜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유수프는 더 이상 모스크에 가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예수님께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용기를 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변화를 알아채고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유수프는 거절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유수프는 무슬림 배경을 가진 다른 신자들과 함께 일 년 동안 훈련을 받을 한 제자도 센터에 안식처를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주님께서 그를 빛으로 인도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유수프는 주님께서 그의 가족을 찾아가 빛으로 인도해주시기를, 그리고 자신을 그릇으로 사용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역 전체에 걸쳐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보통 가장 가혹한 처우에 직면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새롭게 결단한 새 신자 형제자매들을 위한 기도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1.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 계명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신실한 교회들, 목회자들, 전도사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 취약한 새신자들을 받아들여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제와 가족을 내어주는 돌봄 제공자들과 은신처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3. 올해 약속된 제자훈련이 새 신자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해주세요.

4. 정보원들이 이들을 찾고 파괴하도록 보내지는 가운데서 돌봄 제공자들과 은신처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5. 새 신자들이 이슬람 또는 전통 종교로 돌아오도록 보통 가장 먼저 압박을 가하는 이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6.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현장스토리

필리핀_예수님이 저의 편이시니 저는 큰 꿈을 꿀 수 있어요



조수의 변화가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이곳의 활기찬 수상가옥 공동체에서 12살 소녀 제니는 자신과 미래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제니는 필리핀 남부 출신이고 그 지역의 무슬림 부족 13개 중 이 소녀의 부족은 가장 차별을 당하는 부족 중 하나입니다. 제니가 속한 문화와 전통은 보통 교육에 대한 추구를 무색하게 만들어 많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는(보통 사춘기에 이르자마자) 익숙한 길을 따르도록 남겨둡니다. 조혼은 제니가 속한 공동체의 무수한 젊은 여성들의 잠재력을 오래 동안 제한했고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은 제니와 그녀와 같은 많은 다른 이들에게 대체의 선택권을 주고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기 위해 그곳에서 문해력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제니는 보통 집에서 엄마와 언니를 도와 집안 일을 합니다. 어부인 아빠는 가정의 필요를 공급해주기 위해 지칠 줄 모르도록 고생스럽게 일 하고 엄마는 가정을 보살피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도와드리고 나서 제니는 언니와 함께 30분을 걸어서 등교를 합니다. 학교에서 제니는 자신의 부족적 출신만으로 판단하는 비판을 잘하는 급우들과 선생님들에 의해 차별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제니는 자주 고립되고 친구가 많이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들은 제가 그들과 같은 것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저에게 나쁘게 대해요. 한 공간에 있어도 저를 멀리하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제 가족에 대한 못된 말들도 들어요." 4학년인 제니는 그 어느 때 보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밝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니는 문해력 프로그램

을 통해 학문적으로 탁월해지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이 소녀 안에는 꿈을 꿀 수 있는, 큰 꿈을 향한 강렬한 불꽃이 점화되었습니다. “저는 문해력 프로그램을 통해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개발해 학업을 잘 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날 제니는 반에서 우등생 중 한 명이고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제니와 가족들은 단순히 하급의 부족에 속한다는 이유로 직면한 편견의 결과로 엄청난 심적 고통과 고충을 견뎌왔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차별은 대단히 파괴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 아빠는 가족들에게 공급해주시기 위해 밤낮으로 집에서 멀리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정말 열심히 일 하세요. 아빠가 돌아오면 저희는 온가족이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은 저희에게 정말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예요.” 헌신적인 어부인 제니의 아빠는 동료 어부들과 함께 박해에 직면합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변함없는 믿음에 대해 비판을 받으며 특정 구역에서 낚시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 당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은 그가 직면하는 도전들을 증폭시켰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더욱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어려움은 어장을 지배하고자 하는 경쟁 상대 어부들에 의해 더욱 복잡적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위협, 폭력, 심지어 살인까지 야기했고 제니의 아빠를 끊임없는 위험 가운데 놓이게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께서 필요를 공급해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역경에도 불구하고 배움에 대한 제니의 변함없는 사랑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족적 출신에 의한 급우들과 선생님들의 계속되는 못된 말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지식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갈망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회복력과 확고한 정신은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어 도전은 인내와 지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한 줄기 희망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니는 자신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합니다. “문해력 수업을 위해 지지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는 저를 포함해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저희 편이신 것을 기억하며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격려를 얻었어요.”



기도해주세요

1. 제니가 교육과 꿈을 향해 나아갈 때 계속해서 힘과 인내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 소녀가 도전과 차별에 직면할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필요한 지지와 격려를 공급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2. 제니의 가족과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두고 함께 기도해주세요. 제니 아빠가 어업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들이 직면하는 박해와 폭력이 종식되기를, 그리고 공동체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3. 제니의 영적인 성장과 가정교회의 청소년 리더가 되고자 하는 바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 소녀가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기를 바라는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해주세요. 제니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감과 지지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이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Heart To Heart

WEEKLY OpenDoors

한국오픈도어는 오픈도어위클리 모바일 주간 소식지를 통해서도 전세계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간 소식지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is too little.’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파라와 자난은 이슬람국가(ISIS)가 쫓겨난 후에 니네베 평원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랑했던 그곳이 파괴된 것을 보고 상심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지지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파라는 한때 아름다웠던 고향의 잔해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IS)의 구호는 벽들에 분무되어 있었습니다. 길 건너에 있는 그녀의 미용실은 약탈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33세의 파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고향과 추억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마을을 보고 상심했어요. 이 곳은 난파되고 불탄 곳이 되어있었어요.”

파라, 그녀의 남편 자난, 그리고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게이스가 옷만 챙겨 니네베 평원에 있는 집을 떠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슬람국가(ISIS)가 그곳에 왔고 파라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를 안에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수년이 걸렸죠.”

그래서 2017년에 마을이 해방된 직후 파라와 가족들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엉망이 된 집과 폐허가 된 일터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된 마을을 보고 상심했어요.”

2017년과 2022년 사이에 여러분들의 선물을 통해 니네베 평원에 있는 2,000채 이상의 집들을 다시 세울 수 있었고 파라의 가정과 같이 박해 받는 수천 기독교 가정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파라는 최대 5,000달러의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300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출은 그 후 몇 년 동안 상환하고 마지막 남은 20%는 수혜자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파라는 대출을 통해 미용업을 위한 장비를 구매했고 2017년 성탄절 직전에 단골 기반의 미용실을 재개했습니다. “첫 손님은 이슬람국가(ISIS)가 나타나기 이전에 오시던 고객이었어요!”

파라, 자난, 게이스(현재 청소년), 그리고 7살인 마리아는 이라크에 남아있는 200,000명이 약간 넘는 신자들 가운데 속합니다. 20년 전에는 150만명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경

제 상황은 파라가 장시간 일하고 자난은 겸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가정은 여러분의 지지와 기도 덕분에 남아있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라크는 제 모국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희를 도우셨고, 곁을 지켜 주셨고, 격려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분명히 이 곳으로 돌아오고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기도해주세요

“고통과 박해는 기독교인들이 이라크에 남아있는 것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 있습니다. 이라크에 안전과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도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꿈이에요.”

이라크, 니네베 평원에서 파라 드림.



에티오피아 베드루 가족 이야기

행복과 자부심은 이 에티오피아 가정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그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가정입니다. 증오, 돌 던짐, 그리고 거절은 이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개를 들고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따를 것을 결단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박해가 있지만 지금은 더욱 견딜 만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처음 2년 동안은 생존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제가 손에 성경을 쥐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알아냈어요. 그들이 성경을 목격하고 나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죠. 저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은 전부 동시에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주위의 지역사회는 저희를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저희를 향해 돌을 가지고 나아왔어요. 매일 저녁, 그리고 매일 아침 저희를 향해 돌을 던졌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너희들은 무슬림이었지만 기독교인이 되면서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결혼도 절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예수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러니 내가 독신으로 사는 것은 걱정할 필요 없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베드루는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는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그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가 사는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금과 빛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픈도어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파트너들을 통해 이 가정과 이들과 같은 이들이 극심한 박해 이후에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베드루에게는 그 땅에서 일을 도울 소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치 제 안에 있는 큰 빛과 같이 느껴져요.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은 정말 놀라워요.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분과의 여정을 계속하는 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 소유물은 불에 탔어요. 사람들은 몇 차례 제가 수확한 것에 화학약품을 부었어요. 그들은 제 옥수수도 훔쳤어요. 제 땅의 일부를 가지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와 아내는 신앙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느낀 적이 결코 없어요. 제 아이들마저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베드루와 그의 가족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보이는 확신과 기쁨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들의 지역사회에 보여주는 본보기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주시기를, 그리고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박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유튜브 채널에서 “베드루 가족 이야기”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들어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Heart To Heart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오픈도어 기도모임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3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전세계 박해 받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3절)” 기도는 매주 화요일 저녁 07:30-20:30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줌(Zoom) 회의실 정보
회의 ID: 428 695 6103
링크:
<https://us02web.zoom.us/j/4286956103>

*문의 사항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대표번호: 02-596-3171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ARISE AFRICA CAMPAIGN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Arise Africa Campaign)

동역자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폭력적인 기독교 박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주시고 연합하여 폭력적인 박해에 함께 맞서 주세요.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캠페인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선물

- 25,000원으로 박해 받는 가정의 젊은이들 4명에게 한 달치 교육을 제공하여 희망을 선물합니다
- 60,000원으로 극심한 폭력을 경험한 3명의 기독교인들에게 트라우마 치료를 통한 치유와 소망을 선물합니다
- 160,000원으로 박해로 인해 실항민이 된 4명의 기독교인들에게 식량, 의약품, 그리고 생존을 위한 이외 긴급 구호를 선물합니다
- 270,000원으로 박해 받는 가정의 젊은이들 4명에게 일 년치 교육을 제공하여 희망을 선물합니다

아프리카 후원 신청은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https://www.opendoors.or.kr/> (QR코드를 찍어주세요)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대표번호: 02-596-3171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3.전화(02-596-3171/010-7548-3171)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 4.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주소: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1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10,000원 기타:	출금일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010-7548-3171)